

# 經濟學者的 辨明

## 高 承 濟\*

.....<目 次>.....

- 1. 經濟學者的 責任分野規定
- 2. 經濟學者的 資格規定
- 3. 經濟學者的 理想像規定

### 1. 經濟學者的 責任分野規定

서울大學校商科大學에서 成長을 거듭하여 온 韓國經濟研究所가 經濟學의 時代的 使命을 體系的으로 解明하는 심포지움을 가졌다는 事實은 韓國經濟學의 60年史上 처음보는 뜻 깊은 學問의 祭典이라고 評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의 最後의 順序로서 저 自身은 經濟學者的 辨明이라는 題號 밑에서 몇가지 짧은 所感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最近에 이르러 經濟學이 無力化 또는 非効率化의 趨勢을 나타내고 있다는 非難의 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와 같은 非難의 소리가 어느만큼한 妥當性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反省하여 볼 必要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일찍이 A. C. Pigou 教授는 經濟學者的 責任分野가 經濟動態를 있는 바 그대로 分析하는 일에 局限되는 것이지 經濟問題의 解決方案을 定立하는 일에 關與하는 것이 아니라는 明白한 規定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現代經濟學의 主人公은 經濟學者인 것입니다. 經濟學者는 그 人間系譜나 職能系譜에 있어 經濟行政家가 아닌 것입니다. 經濟學者와 經濟行政家사이에 가로 놓여진 嚴然한 差異性을 意識하지 못한 채로 經濟學에 대하여 無力하다든가 效率이 없다는 批判을 내린다면 그것은 넌센스에 가까운 現象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經濟行政家는 經濟動態의 把握에 있어 經濟學者의 힘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經濟問題의 解決方案을 定立하는 일은 經濟行政家가 發揮하여야 할 固有한 職分인 것입니다.

18世紀 中葉以來로 수많은 經濟學者들이 登場하였습니다. 그들이 보낸 人生經路에 관

\* 學術院 會員

한 統計學的 平均值를 算出하여 본다면 經濟學者인 同時에 經濟行政家라는 複合的인 職業構造를 가진 人生살이를 한 經濟學者는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經濟學이 歐美先進社會에서 生成 發展하여 온 學問인 것은 누구나 否定할 道理가 없는 嚴然한 事實입니다. 다시금 생각하여 본다면 歐美社會가 經濟近代化의 領導者이었던 것은 經濟學者和 經濟行政家 사이에 흐리멍덩하지 않은 秩序整然한 職分上의 分業關係가 形成되었기 때문이었다는 考察도 세워질 수가 있는 줄로 믿읍니다. 다른 次元에서 論理를 세워 본다면 韓國의 近世社會가 停滯社會로 끝날 수 밖에 없었던 歷史的 宿命의 根因을 指摘하여 보는 것도 뜻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李朝社會의 官僚體系에 있어서는 學者和 行政家의 職分上의 分業體制를 意識적으로 解消시키는 方向으로 形成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歷史的 教訓을 되새겨 본다면 經濟學者는 經濟動態의 分析者로서 그 使命과 權威를 지켜나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判斷되는 바입니다.

## 2. 經濟學者의 資格規定

그러면 經濟學者는 世界經濟나 韓國經濟의 動態를 分析함에 있어 充足한 分析者로서의 資格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 이 點을 스스로 反省하여 본다면 否定的인 對答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1960年代의 後半期以來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世界各國의 經濟學者들은 世界經濟의 動態나 自國經濟의 動態를 分析함에 있어 各人各색의 結論을 百出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事實이야말로 世界各國의 經濟學者들이 經濟動態의 分析者로서 그 資格을 喪失하고 있다는 不動의 指標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經濟學者들은 經濟動態의 分析者로서 그 資格을 喪失할 수 밖에 없었는가 제 나름대로 大膽한 結論을 내리고 본다면 經濟動態를 歷史的 現實로 把握하는 底力이 不足한 탓이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經濟動態의 基本認識에 있어 經濟學者들은 經濟動態의 局面轉換을 變調나 循環으로 보는 思考方式에 깊이 잠긴 채로 歷史的 轉換으로 보는 새로운 視野를 세우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命題를 現下의 高物價時代에 關聯시켜 보기로 하겠읍니다. 經濟動態의 局面轉換을 經濟運營基調의 變化에서 보아야 한다는 理由를 生産의 3要素說에 立脚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읍니다.

오랫동안 生産의 3要素중에서 資本이라는 生産要素만이 優位的 地位를 獨占하여 왔읍니

다. 그러나 1960年代 中葉以來로 勞動이라는 生産要素가 資本이라는 生産要素에 對應하는 勢力으로 登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美國을 비롯한 先進諸國에 있어서는 賃金の 上昇이 物價의 上昇을 促進하는 決定的인 要因으로 作用하는 事態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지난 1973年 10月 以來로 資源이라는 生産要素가 資本 및 勞動에 못지않은 高價를 要求하는 事態가 發生하였습니다. 이처럼 生産活動에 所要되는 모든 生産要素들이 競合적으로 높은 價格을 要求하는 事態가 거듭되어온 나머지 오늘날의 高物價時代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見解가 옳은 것이든 아니든 經濟學者가 주어진 至上의 職分인 經濟動態의 分析者로서 제 나름대로의 使命을 다하고 世界經濟나 韓國經濟의 動態를 올바르게 分析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資格을 갖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資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經濟動態를 基本的으로 認識하기에 알맞는 노동자의 構造, 또는 렌즈의 메카니즘을 整備하는 일인 줄로 믿어마지 않습니다.

### 3. 經濟學者의 理想像規定

둔이게 생각하여 본다면 1960年代는 經濟學의 發展途上에 있어 希望의 年代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斷定하는 理由는 다음과 같습니다. 1960年代의 經濟學은 後進國의 社會經濟開發理論의 定立에 總力을 기우려 왔습니다. 後進國의 社會經濟開發理論을 定立함에 있어 歷史學者가 登場하여 빛나는 業績을 세웠습니다. 政治學者가 登場하여 빛나는 業績을 세웠습니다. 社會學者가 登場하여 빛나는 業績을 세웠습니다. 考古·民俗學者가 登場하여 빛나는 業績을 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現象은 經濟學의 歷史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던 華麗한 舞臺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經濟學者들은 後進國開發理論의 展開過程에서 發揮되었던 人文·社會科學의 綜合的 接近이 아니던 經濟社會의 歷史的 및 現實的 動態를 올바르게 把握할 수 없다는 敎訓 攝取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1960年代의 經濟學에 대하여 希望을 품었던 것이요 失望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930年代의 經濟總論은 「케인즈」의 有効需要理論을 定立시킨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다면 1970年代의 不況을 겪고 있는 이 미당에서 第2의 「케인즈」가 誕生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니까. 저로서는 第2의 「케인즈」의 誕生을 豫見할 수가 없습니다. 70年代 不況의 原因을 透視하고 對應策의 論理的 背景을 提示하기 위하여서는 經濟社會의 歷史的 變遷相을 人文·社會科學的인 綜合視野에서 分析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춘 學者이어야 할터인데 그와 같은 學者가 제가 살피는 한에 있어서는 韓國뿐만 아니라 世界 어느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申泰煥博士를 비롯하여 이 심포지움에 登場한 7名의 發表者들이 經濟動態를 올바르게 把握하고 分析할 수 있는 지름길이 人文·社會科學的인 綜合接近法을 適用하는 것임을 明示的으로 또는 暗示的으로 指摘한 事實에 대하여 敬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經濟學者的 理想像을 社會科學者가 되는 곳에 定立하여 보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고달픈 길인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世界各國의 經濟學者가 世界經濟나 自國經濟의 動態를 올바르게 分析하는 分析者가 되는 길인 줄로 믿어마지 않습니다.

經濟學者라는 職業을 가진 사람들의 人口數는 增加의 趨勢를 거듭할 것으로 내다볼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經濟學이 창피스러운(discredit) 學問이라는 非難을 받는다면 經濟學의 主人公인 經濟學者들의 人生은 悲慘한 것으로 判定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非難을 받지 않는 人生살이를 하고 싶다는 奮發心이야말로 今後의 經濟學을 停滯局面에서 動態局面으로 轉換시키는 推進力이 되어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에 있었던 심포지움의 最大公約數的인 收穫은 바로 이와 같은 새로운 推進力을 造出하고야 말겠다는 마음 가진 것으로 評價하고자 하는 바입니다.